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2. 3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통계와 관련하여 “보급목표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, 실상은 ‘1,000MW 뺑튀기’”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

(3.19일자 조선일보 “보급목표 초과 달성”,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, 실상은 ‘1,000MW 뺑튀기’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공식 확정치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(11월)까지는 잠정치 실적을 사용하고 있으며, 에너지공단이 분기별로 집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음
- ◇ ‘설비확인일’ 기준의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,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
- ◇ 기사에서 제시한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수치는 통계청 승인 공식 통계 집계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서,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임
- ◇ 3.19일자 조선일보 <“보급목표 초과 달성”,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, 실상은 ‘1,000MW 뺑튀기’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,000MW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됨
 - 발표된 수치는 통계청이 공식 승인한 집계 방식을 따른 게 아니며 11월 정식 발표하는 국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
- 산업부가 매년 8월말 발표하던 통계를 1월달에 발표한 것은 논란이 많던 재생에너지 설비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,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○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‘RPS 설비확인일’ 기준으로 집계되어 11월경 집계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으나,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

* ‘20년 말 상업운전 후 ‘21년 초 설비확인 설비 → ‘21년 보급량 포함

* ‘21년 말 상업운전 후 ‘22년 초 설비확인 설비 → ‘21년 보급량에서 제외 (‘22년 보급량에 포함)

○ 통상 상업운전 개시 1~2개월 이후 RPS 설비확인이 진행되어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, 공식통계 발표시(11월)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·활용하고 있음

○ 기사에서 인용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(3,761MW)는 전기 안전검사를 위한 통계치로서, 작성 기준 등이 달라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 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이며,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치임

□ 정부가 매년 8월에 발표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

○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‘RPS 설비확인일’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있음

- 정부도 ‘상업운전일’ 기준의 공식 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 (10~11월)에나 발표되어,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하여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

- 또한, 2019년 초('19.2.14)에도 잠정 통계를 인용하여 전년도 보급실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(붙임 참조)한 바 있음
- 금년에도 '20년 대비 '21년 보급실적이 감소하는 등 '21년 보급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, '잠정집계'수치라는 것을 보도자료상에서 분명히 밝혔음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송기환 사무관(5363)

 산업통상자원부		보도자료		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부정책 보다 나은 정부 	
http://www.motie.go.kr					
2019년 2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4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19. 02. 14	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	
담당과장	이용필 과장(044-203-5360)		담당자	강민수 전문관(044-203-5365)	

태양광 연간 설치량 2GW 시대 진입

-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% 초과 달성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」 원년인 ‘18년 한 해 동안 보급목표의 172%에 해당하는 2,989MW(잠정)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발표했다.

* 재생에너지 보급용량(MW) : 태양광 2,027, 풍력 168, 수력 6, 바이오 755, 폐기물 33

- 이행계획의 ‘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.7GW로, 작년 7월 보급목표량을 조기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72%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.

▶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: ‘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%를 목표로 누적 설비용량 63.8GW를 보급하는 계획(’17.12 발표)

-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4차 신·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‘14년부터 ‘17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율은 8.9% 수준이나,

- 이행계획 시행 이후에는 전년대비 19.8%가 증가해 이행계획의 주요 골자인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.

▶ 신·재생에너지 기본계획 : 신재생법에 따라 정부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추진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

□ 태양광은 '98년부터 '17년까지 누적 보급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,027MW의 설비가 지난 한 해 동안 보급되었고, 분산전원의 역할에 적합한 1MW 미만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상당부분(83%)인 것으로 확인됐다.

* 용량별 구분(MW) : (100kW미만) 698, (100kW이상 1MW미만) 985, (1MW이상) 345

○ 지역별로는 전남·전북에 신규설비의 33%가 집중 설치됐고, 충남, 강원, 경북이 그 뒤를 이어, 5개 지역이 '18년 설치량의 70%를 차지했다.

* 지역별 설치비율(%) : 전북 17.7, 전남 15.5, 충남 12.3, 강원 12.1, 경북 12.0, 그 외 30.3

○ 설치형태로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임야 태양광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축소(0.7)영향으로 전년대비 임야활용 태양광 설치 비중이 12%p 감소했고, 건축물활용 태양광 설치 비중은 15%p 증가했다.

* 형태별 비율(%) : ('17) 임야 36, 건축물 25 → ('18) 임야 25, 건축물 40

□ 풍력은 해상풍력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상향조정(최대 2.0→3.5)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,

○ 지난 한 해 동안 설치규모는 168MW에 그쳐 태양광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.

□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, 제도 개선, 융·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 등이 담긴 종합적인 「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강민수 전문관 (☎ 044-203-53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